

국립중앙도서관  
(특별 열람실)

국통조77-9-1161

北韓調査研究 社會

# 北韓託兒所制度의 問題點

學術會議結果報告書

국립중앙도서관  
(특별 열람실)

國土統一院

## 1. 一 般 事 項

가. 主題：北韓託兒所 制度의 問題點

나. 日時：1976. 6. 16(午) 14:00-19:00

다. 場所：當院狀況室

라. 參 加 者

### (1) 發 表 者

류대운 (滯順勇士, 前北傀軍少尉)

安秉永 (延世大, 行政學)

尹賢燮 (教育開發院, 發達心理學)

李奎浩 (延世大, 教育哲學)

白尙昌 (社會病理研究所, 精神分析學)

洪妍淑 (漢陽大, 言語學)

韓完相 (前서울大, 社會學)

### (2) 討議參加者

成沃蓮 (中央大, 兒童心理學)

朴一聖 (當院, 常任研究委員)

朴竣弘 (當院, 社會文化研究官)

鄭鎮雄 (當院, 經濟科學研究官)

李源明 (當院, 調查研究室 補佐官)

### (3) 司會 및 主管

白樂曙 (當院, 次官室 補佐官)

(4) 特別參席：當院 次官，各 室，局長

마. 發表 主 題

	發 表 主 題	發 表 者
1	北傀兒童保育教養法 解說	朴 一 聖
2	北傀託兒所·幼稚園 現況 說明 및 質疑応答	류 대 운
3	北韓의 政治社會化 過程에서 본 北韓의 託兒所 幼稚園 制度	安 秉 永
4	兒童開發學的 見地에서 본 北韓의 託兒所 制度	尹 賢 燮
5	教育哲學的 側面에서 본 北韓兒童의 集團養育	李 奎 浩
6	精神分析學的 側面에서 본 北韓의 託兒所 幼稚園 制度	白 尙 昌
7	韓國女性의 立場에서 본 北韓의 託兒所 幼稚園 制度	洪 妍 淑
8	社會學的 側面에서 본 北韓의 託兒所 制度	韓 完 相

## 2. 發表要旨

### 가. "어린이 保育教養法" 解説

#### (1) 問題의 提起

北傀는 1976年 4月 27日 부터 29日까지 3日間에 걸쳐 召集된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6次 會議에서 北韓의 모든 어린이들을 週·月 託兒所 및 幼稚園에서 保育教養하며 모든 女性의 社会的 進出을 制度的으로 保障하기 위한 것이라는 明分下에 "어린이 保育教養法"을 採択하였는 바 當院은 同 制度가 本質的으로 反民族的 非人道的 要素를 內包하고 있으며 나아가 民族의 平和的 再結合을 더욱 어렵게 할 그 어느 物量的 措置보다 무서운 策략으로 判斷 理論的 實際的 側面에서 同 制度에 關한 多角的인 分析과 評價를 하고자 함.

#### (2) 法採択의 一般事項

##### 가) 法案의 正式名稱 및 構成

1) 正式名稱：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어린이 保育教養法

2) 構成：(全6章 58條)

##### 나) 採択機關 및 採択日時

1) 採択機關：最高人民會議 (第5期 6次會議)

0 報告者 (提案者)：정준기 (政務院 副總理)

0 討論者 (盟誓人)：유금선 (教育委員會 普通教育部長)

조정희 (女盟中央委員會 託兒所 幼稚園  
事業部長)

이은순 (江原道 통천군 장진水産協同組  
合委員長)

2) 採択 및 公布日字: 1976. 4. 29.

3) 公布人: 國家主席 金日成

4) 施行日字: 1976. 6. 1 (共產黨의 "國際兒童節" 26 周  
年 記念日)

### (3) 法の 要旨

#### 가) 基本性格 및 目的

0 性格: 이 法은 "抗日革命傳統을 이어 받은 法"으로  
(第4條) 맑스·레닌主義를 北傀의 現實에 "創  
造的으로 適用한"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唯一한  
指導思想으로 삼아" (第5條), "共產主義 建設의  
後. 備隊이며 代를 이어 革命할" 北韓의 어린이들  
을 (第1條) "國家와 社會의 指導로 週, 月 託  
兒所와 幼稚園에서 (第2條) 保育 教養하려는  
法임.

0 目的: 이 法은,

- 모든 어린이들은 主體型的 革命的 人民으로  
키우고
- 모든 女性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負

担에서 解放하며

- 온사회를 革命化, 勞動化 하는데 이바지 한다.

(第6条)

나) 法の 施行原則 및 適用範圍

- 0 이 法에서 어린이라 함은 世上에 태어날때부터 學校에 가기前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第10条)
- 0 國家는 週, 月 託兒所, 幼稚園을 組織한다. (46条)
- 0 託兒所에서는 1세부터 3세까지, 幼稚園에서는 4세부터 5세까지 키운다. (第45条)
- 0 革命烈士, 愛國烈士, 人民軍 後方家族, 榮譽軍人의 子女들은 特別히 保護한다. (第19条)
- 0 中央의 教育 및 保健行政機關들은 어린이 保育教養에 對한 全般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第48条)
- 0 保育員 教養員은 榮譽로운 革命家이며 國家의 資格을 가져야 한다. (第38条 및 第40条)
- 0 모든 企業所 團體들은 内部豫備를 動員하고 節約하여 託兒所 幼稚園에 對한 經費를 支援해야 한다. (第58条)

#### (4) 北傀의 自體宣傳 및 評価

##### 가) 정준기 (政務院 副總理)의 法提案 趣旨 說明

- 0 어린이들을 金日成 首領에게 充實한 革命의 繼承者로 養育하는 것은 革命의 必須的 要求임.
- 0 現情勢는 国防建設과 經濟建設에 모든 힘을 넣을것을 要求하고 있음.
- 0 사람들의 品性和 思想은 어려서부터 形成되며 어린이들을 主體型的 새人間으로 키우는 것은 革命의 前途와 關聯되는 死活的 問題임.

##### 나) 討論 內容 (支持贊同 및 忠誠 盟誓 演說)

- 0 유금선 (教育委員會 普通教育部長)
  - 모든 어린이들은 金日成 首領에게 忠直한 主體型的 革命家로 키워내겠음.
- 0 조정희 (女盟中央委員 託兒所, 幼稚園 事業部長)
  - 党的 唯一한 思想教養, 革命教養, 階級教養을 더욱 強化하여 金日成 首領에게 기쁨을 드릴것을 굳게 決議함.
- 0 이은순 (江原道 通천군 장전水産協同組合管理長)
  - 이땅에 태어나 새世代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말은 “어

아버지 金日成 원수님 "이라는 榮光스러운 존함이고, 처음 배우는 노래는 "金日成 將軍의 노래"이며, 가슴 속에 가장 깊이 간직되는 것은 "아버지 수령에 대한 忠誠의 마음"임.

- 우리의 어린이들은 아침마다 託兒所, 幼稚園에 나오면 아버지 金日成의 아들딸이 되자고 盟誓하며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金日成 首領에게 감사부터 드림.

- 아버지 수령님의 尊貴하신 영상앞에 한겨울에도 진달래를 붉게 피워 놓고 있으며 金日成 수령의 現地指導 史蹟週辺은 언제나 깨끗이 거두고 있음.

##### (5) 分 析 評 価

가) 어린이를 父母로부터 隔離시켜 集團保育하는 制度는 古代로부터 (플라톤의 "共和國") 社會主義 思想家들에 의하여 종종 主張되어 온 바 있으며, 實際로 소련의 集團農場, 이스라엘의 키부츠, 中共의 人民公社制度에서 이미 採択 實施된 바 있음.



나) 産業社會에서의 必要性 및 人間形成에 있어서의 學齡前 早期教育의 重要性을 認知하여 先進 資本主義 國家에서도 託兒所 等を 통한 兒童教育에 國家的 社會的 勞力을 傾注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의 兒童教育은 共產國家에서 아동을 國家의 一定目標에 맞춰 特定型의 人間을 養成하려는 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家庭教育을 補完하며 人間의 自律性을 尊重하여 人間의 創意力을 개발하고 산업社會에 適應, 寄與할 수 있도록 保育하고 있음.

다) 金日成이 滿洲 “오가자” 時節 ( 1929-30 ) 부터 直接 構想하였다는 北韓의 託兒所 制度는 6.25 當時 戰爭孤兒들을 集團 收容하는 形態로 시작하여 점차 實施되어 왔는바, 現在는 孤兒들을 集團保育하는 育兒院 및 愛育院 以外에 父母가 있는 어린이를 收容하는 託兒所와 幼稚院의 總數는 6 萬餘個所에 이르고 있으며 收容어린이의 總數는 約 350 萬에 達한다고 주장되고 있음. ( 실제 收容 兒童數는 約 300 餘萬名으로 推算됨 )

라) 現在 北韓 託兒所의 施設 및 그 物理的 環境은 黨高位 特權層兒童을 保育하고 있는 “9.25 託兒所” ( 9.25 託兒所는 外國貴賓들의 視察對象으로 되어 있음 ) 等を 除外하면 極히 貧乏한 實情임.

마) 또한 兒童保育面에 있어서는 金日成 偶像化를 爲한 條件  
反射 原理의 訓練方法을 採択하고 있어 成長 兒童들은  
“愛情失調” 狀態에 있음. ( “情緒教育” 이라는 것도 戰爭  
놀이를 통해 愛情欠乏과 慾求不滿에서 우러난 어린이들의  
攻撃的 性向을 아이들이 實際 알지도 보지도 못한 “美  
帝와 그 傀儡들” 이란 象徵的 對象에 분출토록 誘導하여  
金日成 獨裁體制와 그 指示에 盲從하는 機械的 衝動的  
人間으로 鑄造하고 있는 實情임.

바) 北傀는 “國防建設과 經濟建設에 모든 힘을 넣고” “어린  
이들은 “티없는 革命家의 繼承者” 로 키우기 위하여 一  
日託兒所가 大部分인 現行制度를 週, 月 託兒所制度로 轉  
環 運營하기로 한 바, 이로써 婦女子들은 더욱 勞力動員  
에 酷使될 것이며 아이들은 父母들과 週 1回 또는 月  
1回씩만 家庭에서 會合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同措置로  
因하여 北韓社會에서는 우리나라의 傳統的 家族中心의 生  
活制度가 더욱 破壞될 것이고 北韓의 兒童들은 金日成과  
金日成 體制만을 위한 戰鬥的 機械的 人間으로 더욱 暴  
惡하게 “保育教養” 될 것임.

## 나. 北韓의 託兒所 및 兒童保育 現況

### (1) 託兒所의 現況

0 내가 있을 때 (1975 初)까지는 託兒所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強制的은 아니었으나, 勞力動員에 나가야 할 사람들은 아이들을 託兒所에 맡기는 수 밖에 없었다. 農村에서 집안에 勞動할 수 없는 할머니나 病弱者가 있을 경우 託兒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수가 있다.

- 0 젓먹이의 養育은 아이의 어머니가 職場에서 틈을 내어 託兒所에 찾아와 1日 2回, 午前 午後 各 30分씩 젓을 먹일 수 있었으며, 아이들의 빨래는 生母가 作業中 點心時間, 休息時間을 利用하여 찾아와 處理하곤 했다.
- 0 幼兒들의 食糧供給을 위해 託兒所마다 염소를 길러 母乳를 補充토록 하며 콩으로 "콩젓"이라는 것도 만들어 먹이는 수가 있다.
- 0 妊産婦에는 産前(5週), 産後(6週)의 休暇가 있다. 妊産婦라도 産前 5週 以前까지는 勞動을 해야 하는데 醫師協會에서는 妊産婦에게 30kg 以上の 等짐勞動을 하지 않도록 主張하고 있으나, 實際로는 "計劃量 達成" 때문에 30kg 以上을 지고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2) 託兒所 出身의 性格

- 0 託兒所 出身이 아닌 아이들은 "集體生活"에 뒤떨어진다.
- 0 家庭에서 자란 靑少年들은 性格이 温和하고 "保守的"인 反面 託兒所 出身들은 性格이 과격하여 利害가 相反될때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머리속에 박힌 생각만을 貫徹하려는 傾向이 있다. 내가 軍隊에 있을 때

도 託兒所 出身이 아닌 者 (農村出身이 大部分) 와 託兒所 出身들을 完全히 區別할 수 있었다.

### (3) 思想教育現況

0 어릴때부터 金日成은 親父母보다 더 가깝고 絶對的인 存在로 생각토록 教育받는다.

0 金日成은 絶對로 지지 않는 사람이고 絶對로 失敗하지 않는 사람으로 믿게 하며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예를 들면 國際試合은 事前에 報道되는 法이 絶對없고 이긴것만, 그것도 金日成 唯一思想에 透徹했기 때문에 또 이겼다고 報道한다.

0 아이들이 배우는 노래는 大部分 金日成을 主題로 한 노래이며, 食事때는 勿論 사탕과 과자를 줄때는 꼭 金日成 首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어느 아이를 보고 누가 준 것이냐 물으면 백이면 백 모두 金日成 首領님이라고 对答한다.

0 그러나 靑少年들이 體制를 非難하는 노래를 다른 노래의 歌辭를 바꾸어 부르고 問題를 일으키는 수가 종종 있다.

내가 있던 地域에서 어느 아이가 그런 노래를 부른것이 問題가 되어 道黨委員會에 까지 올라 갔었다.

그러나 그 아이의 父母가 基本階級인 農民이어서 父母와 아이가 크게 罰을 받지 않는었다.

0 南韓은 모두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고 宣傳해와서 내가

帰順할때 江原道 산골에서 農夫들이 모두 옷을 잘 입고  
健康해 보여 굉장한 地主인가보다 생각했었다.

0 어릴때의 戰爭놀이 등을 통해서 美国人을 徹底히 憎惡하  
도록 教育받았기 때문에 美国人은 사람이 아닌 무슨 惡  
魔처럼 생각되었다. 내가 帰順한 後 언젠가 美国人들이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한다 그랬을 때는 정말 무섭고  
만나기가 싫었다.

0 北韓의 50代 以上の 사람들은 특히 不平이 많다. 日帝  
時代에도 요즘처럼 이렇게 勞動만 하지는 않았다고들 不  
平한다.

### 3. 主題發表內容

가. “北韓의 政治社會化 過程에서 본 託兒所 幼稚園 制度

安 秉 永

政治社會化 즉 Political soci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의 政治文化를 그 社會의 成員에게 傳承시키는 過程, 다시 말하면 그 社會의 政治的 生活樣式을 습득시키는 過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個人的 次元에서 본다면 政治라는 세계를 배우고 政治와 연관된 問題를 理解하여 政治參與로 이끌어지는 過程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個人的 次元에서 볼 때 社會化 現象은 認知的, 定義的 및 評價的 測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政治社會化는 一般的인 社會化過程 (Socialization process) 중 後期에 이루어지는 社會化 現象입니다. 그런데 北韓의 경우처럼 政治社會化가 初期로부터 이루어지면 定義的, 評價的인 次元에서 보다는 感情的, 情緒的 次元에서 政治的 象徵 (political symbol) 과의 同一視 (identification) 또는 情緒的 一體感이 強調될 것입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初期의 社會化에 의해 情緒的 一體感이 굳어져 있다 해도 思春期를 前後한 分水嶺에서 다시 한번 再調整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 경우 體制에 대한 政治的 幻滅 또는 無規範으로의 退行 (regression) 現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北韓의 託兒所 幼稚園制度에 의한 政治社会化에는 몇가지가 假定되어 있는듯 한데, 첫째, 初期의 政治社会化 過程이 매우 重要하다는 것과, 둘째, 初期의 政治社会化의 結果로 디딤돌을 분명히 한 후 이를 뒷받침 하는 環境을 造成함으로써 補強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假定이 맞는 것인지 또 이런식의 政治社会化에는 問題點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必要가 있겠습니다.

一般的으로 政治社会化의 媒體로는 家庭, 同僚集團, 学校, 매스미디어 등이 있는데, 北韓의 경우, 家庭을 파괴했으므로 家庭이 政治社会化의 媒體로 作用할 수 있다는 측면은 일단은 減少되었다고 할 수 있는 反面, 託兒所 幼稚園으로 부터 시작되어 소년단 社勞靑 기타 一般社会集團 등 접점이 持續되는 集體生活로 다른 生活을 못하게 環境지움으로써 初期의 社会化를 계속 補強하고 있는 實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本論으로 들어가기 前에 原論的인 이야기를 더 말씀드릴 것은, 東歐의 경우, key Political Socialization Themes 즉, 國家가 政治教育을 시키는데 가장 重視하고 있는 主題 ( theme )가 무엇인가 할때, 유고슬라비아와 다른 8個東歐國家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東歐國家의 경우,

- ① 社会主義建設
- ② 反 帝國主義
- ③ 社会主義道德
- ④ 愛

國主義 ⑤ 反個人主義 ⑥ 社會主義 共同體 意識 ⑦ 反民族主義  
 ⑧ 反스탈린主義의 序列<sup>1)</sup>가 되었는데 반하여, 多數民族國家인 유고  
 슬라비아의 경우는, ① 反民族主義 ② 愛國主義, 즉 統一體로서의  
 國家에 대한 忠誠 또는 國家象徵에 대한 忠誠 ③ 社會主義建設  
 ④ 反스탈린主義 ⑤ 反個人主義 ⑥ 社會主義道德 ⑦ 社會主義共同  
 體 意識 ⑧ 反個人主義의 順으로 되어 있는데, 社會主義 共同體  
 意識이 後順位에 머무는 것은 소련中心의 東歐體制에 대한 抵抗을  
 나타내며, 反個人主義가 最下位에 있는 것은 個人主義의 可能性을  
 示唆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要컨대 Political Socialization Theme 의 最優先 順位에 해  
 당하는 것은 그 社會에서 가장 重視되는것,

즉 이것이 해결 안되면 體制維持와 生存을 위해 問題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北韓 託兒所 制度의 경우, 조금전의 유대운씨의 말씀을 들어보면,  
 ① 金日成에 대한 忠誠  
 ② 戰爭에서의 攻撃性 強調, 즉 이른바 革命的 人間型의 強調,  
 ③ 集體生活 등이 Main Political Socialization 의 順으로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곧 이것들이 잘 안되면 北韓體  
 制에 問題가 생기는것 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金日成의 偶像化가 가장 強調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 안될 가능성도 있어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戰爭時의 攻撃性 強調나 集體生活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이 一般論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北韓의 政治 社会化의 実態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北韓政策当局者들이 託兒所 幼稚園制度를 통해 노리는 政治的 社会化의 効果, 즉 初期社会化를 통하여 굳혀놓고 계속해서 補強만 시키면 그 결과가 흔들리지 않고 持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과연 옳을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東洋社会의 경우, 個人主義 ( individualism ) 보다는 共同體指向 ( Community-oriented ) 의 意識이 強하다고는 하나, 政治的 象徴 또는 集體에 對한 忠誠은 사실상 약하고 오히려 地域集團이나 緣故集團 같이 集合度 ( Collectivity ) 水準이 낮은 集團, 즉 社会的 分派要因이 되는 集團에 對한 忠誠이 強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가지를 들수 있겠지만 우리民族이 대대로 國家나 社会로부터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여 왔다는 것, 다시 말하면 國家나 社会로부터 受惠感을 느끼지 못해왔다는 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北韓의 경우, 託兒所를 통하여 國家나 社会에 對한 忠誠이 内面化 될것이며, 또한 父母들은 시달림으로부터 부담을 덜었다는 受惠感이 作用될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고 北韓이 閉鎖社会이며 또한 北韓社会에서의 社会化 過程이 초기의 社会化 過程에서 굳혀진 것을 계속 보강하고 있는만큼 어떤 다른 충격을 받아 이 수혜감이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問題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 北韓의 세가지 階級 즉 核心階級, 基本階級, 複雜한 階級間에 社会的 移動 (Social mobility)이 극히 制限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경우 階級別 成長過程에서 政治問題를 認知하고 評價하는데에 차이가 생겨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支配階級の 社会化와 기타 階級の 社会化는 따로이 행하여지고 있고, 第3階級の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限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北韓에서도 問題點을 인정하여, 金日成도 第3階級所屬의 인원이 노력만 한다면, 예컨대 탄광같은데에서 3, 4年 즉도록 노동하면, 이를 좀 봐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숨통을 뚫어 놓아야 하겠다는 문제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1971年인가 統一院에서 낸 "北韓住民의 不滿要因 分析"을 보면, 不滿事件 800餘件중 어떤 階級에서 어떤 不滿이 있었는가에 관해서 상세히 "分析"하여 놓았는데, 最下位의 複雜한 階級에서는 不滿表出의 事例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不滿을 表出할 수 있는 立場에 있지 못한 탓도 있지만, 이미 너무 눌러서 다른 可能性을 拋棄한, 다시 말하면 앞에서 言及한 政治的 自我의 再調整期에 無規範, 無關心 狀態로 退行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한편 不滿이 가장 많이 表出되는 階層은 基本階級인데 아까 유대운씨가 北韓體制를 非難하는 동요를 불러서 말썽이 되었던 것이 農民의 子女였다는 것은 그 좋은 例라고 할 수 있습니다.

核心階級에서의 不滿은 주로 高級幹部가 지나치게 貴族化 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北韓의 實相은 잘 모르지만 누구나 託兒所, 幼稚園, 靑少年 사로청 등등의 마디마디에서 노력을 하면 認定받을 契機가 주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救濟可能性은 있고, 따라서 그 體制에 살면서 適應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 機會를 포착하기 위해 꽤 노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첫째, 機會主義的 人間型이 形成될 可能性이 높을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문제는 東歐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現象으로서 一種의 無規範狀態로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좋다는 것을 알더라도 集體主義的 生活아니면 살 수 없는 狀態로 되어 버려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같은 政治的 自我形成過程에서 어떤 衝擊이 있을수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 하는 問題입니다. 東歐의 경우에는 다른 文化와의 接觸이 있어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으나 北韓의 경우 이런 可能性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만일 그러한 可能性이 있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方向으로 될것입니다. 그렇지만 北韓社會의 支配階級과 다른 階級の 兩分된 社會化 過程에서 나오는 不滿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外部的 衝擊이 없다는 것을 前提한 北韓社會의 두번째 問題點은 어느 共產國家에서나 共通되는 現象으로 産業化가 되고 産業社會의 共通된 文化現象이 뚜렷이 나타날 경우, 一般人들의 行態에도 보다 合理的 패턴이 나타날 可能性이 있고 이것은 이제까지의 金日成

偶像化, 革命性, 集體主義에 대한 強力한 반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 集體主義 " " 革命性 " 등은 産業社會에서 體得되는 合  
理性和 相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可能性은 北韓에서는  
힘들다고 보이며, 오히려 우리 社會에서 더 문제될 수 있을 것입  
니다. 우리 社會에서 國家나 社會가 주는 象徴에 대한 政治社會  
化가 오히려, 必要한듯 한데, 이것은 반드시 政治教育을 통해서라기  
보다도 國家가 國民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혜택을 주었다는 受惠  
感을 부여함으로써 얻을수 있다고 보며, 이것은 社會福祉의 擴散,  
政治體制의 效能感, 信賴感을 통하여 可能할 것입니다.

『教育哲學的 側面에서 본 北韓兒童의 集團養育』

李 奎 浩

教育哲學的 側面에서 就學前 兒童教育 또는 早期教育問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北韓의 實情을 고려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北韓의 就學前 兒童教育의 制度가 어떻게 될것이다, 하는 것과 그것이 教育的으로 어떤 效果를 가질수 있고 어떻게 正當하나하는 문제는 현재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요즘 人間에 관한 科學이 발달하여 哲學分野에서도 이러한 人間科學에 의해 발굴된 結果를 종합하여 人間の 本質이나 性格, 人間性의 形成過程같은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哲學分野가 있습니다. 이러한 哲學의 最近 研究에 의하면 人間은 自然으로부터 出生한 狀態에 있어서는 未完成의 動物이고 그것이 家庭, 學校, 社會안에서 完成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人間은 第一의 母胎에서 나올때에는 아직 未完成의 動物인데 第二의 母胎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完成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第二의 母胎의 機能을 家庭이 가장 훌륭히 遂行하느냐 혹은 家庭이 그런 것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결함이 있고 따라서 託兒所 幼稚園같은 것이 그 家庭을 代置해야 되는지 또는 家庭을 補完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最近의 教育哲學이나 教育學에서도 就學前 兒童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世界的으로 대두하게 된 것은, 人間에 관한 科學  
 들이 발달하면서 종래에 우리가 先天的 혹은 遺傳的이라고 여겼던  
 여러가지 性格이나 素質같은것. 예를 들면 國民學校에 들어온 兒  
 童들을 상대하는 教師가 저 아이는 父母가 머리가 좋아서 나면서  
 부터 머리가 좋다 또는 나쁘다 하는 것, 등이 사실은 잘못이고,  
 遺傳的 要因이 作用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遺傳的 要因이 性  
 格이나 素質에 무엇을 意味하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아까 安教授  
 께서 말씀하신 第一次 社會化 (primary socialization)의 過程  
 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는 것, 다시 말하면 素質과 人間性의 틀이  
 第一次 社會化過程에서 기초를 잡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한번 기초가 잡히면, 그후의 教育을 통해서 또는 社會的 變動이나  
 아까 安教授께서 지적하신 思春期 등에서 좀 變化가 일어날 수 있  
 으나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하는 認識들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就學前 兒童의 教育이 그렇게 重要視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은 오늘날 産業社會에 있어서 家庭의 教育的인 機能이  
 옛날과는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先生任님께서  
 어머니는 하루종일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은데 託兒所에 맡겨 놓  
 으면 안타깝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産業社會에 있  
 어서 정말 父母가 옛날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병아리처럼 하루종일  
 품고 있게끔 그런 生活狀態가 허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버지는 식사때에도 아이들을 만나기 힘든 狀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就学前 兒童教育, 그것이 託  
兒所 幼稚園이나 혹은 다른 形態로 나타나든지간에 그런 就学前  
兒童教育이라는 것이 이제는 世界的으로, 最近에 이르는 教育改革  
運動중 제일 重要的 大목으로 登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北韓의 이번 措置도 世界的인 眼目을 가지고 보지 않고 그런 前  
提知識없이 그것만을 왈가왈부하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지 않겠느  
냐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産業社会에서 家庭이란 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포근한 教育的인 機能을 발휘하기에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을뿐 아니라, 또 家庭이 그런 傳統的인 社会에 있어서의 教育  
機能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는 問題가 많다. 아까 安教授 말씀처  
럼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하다는 것인데 小集團的인 利己主義, 國  
家나 社会라는 그런 全体的인 象徴 또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認識  
보다도 自己家族 中心的인 利己主義의 분위기속에서 자라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就学前에 人間性이나 素質의 틀이 잡힐 그런  
時期에 責任있는 公教育을 해야 한다는 것, 바람직한 人間型을  
위해 公教育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世界的으로 強調되고 있습  
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주로 独逸말을 하는 教育学者나  
教育政策理論家들 사이에 나오는 말 가운데 教育競争 (Bildungs-  
streit)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말의 뜻은 옛날에는 体  
制間的 对決이 軍事的인 对決이었고 다음엔 經濟的인 生活能力을

통한 對決이었는데, 오늘날에는 體制간의 對決은, 심각하게 먼 장래를 내다볼 때 사실은 敎育과 敎育의 對決이다. 즉 어느쪽이 더 敎育을 効率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體制의 未來나 勝敗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敎育競爭을 위한 프로그램중에 제가 알기로는 아가 安敎授께서 政治社會化라고 표현하신대로 크게 말하면 獨逸말로는 政治敎育( Politische Bildung )을 위해서나, 모든 國民의 素質을 最大限으로 開發하는 또는 모든 國民이 最善의 自我를 實現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敎育競爭에 있어서 중요한 問題로 등장하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하게 먼저 대두되는 것이 역시 就學前 兒童敎育의 問題입니다.

이것은 最近 東·西獨의 敎育競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정이 좀 비슷하고, 그런 의도에서 아마 統一院이 세미나를 主催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東獨은 敗戰다음해 그 政府가 서자마자 그들이 말하는 맑스레닌主義的인 敎育理念에 따라서 앞으로의 科學的 技術的 革命의 時代를 내다보면서 敎育體制를 全體的으로 科學化하고 合理化한다는 슬로건아래서 이 就學前 兒童敎育 곧 幼稚園부터 大學敎育, 平生敎育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細分化하고 科學化하여 자기나 몸대로 合理化했습니다.

한편 西獨은 종래의 傳統的 敎育體制가 우월하다는 自負心때문에 商品生産, 經濟發展에만 注力하다가 1964,5년 스투엔트·파우어問題가 일어나고 大學街가 시끌어워지면서부터 敎育問題가 큰일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專門家들은 그전부터 問題意識을 갖  
었습니다. 그러나 西獨은 일반적으로 經濟成長을 위한 기술교육에  
만 신경을 썼고 聯邦主義의 문제때문에 애로가 있어 그후 조기  
교육을 실시할때는 憲法까지 修正해야 했었습니다. 분단 20년이  
지난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소위 '스튜던트 파우워'로 서  
구사회에 대진동이 있는 후에야, 서독은 산업사회에 적용할 수 있  
는 인간을 키우는데 東獨에 뒤늦었음을 깨닫고 혁명전 조기교육에  
대대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는데 經濟力은 豊富하여 施設은 충분하다  
하겠는데 그때까지 資格있는 教師가 養成되지 않았다하는 것을 읽  
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北傀가 이런 措置를 취한 이 기회에 北傀가  
하는 것을 성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問題를 좀 심각히 생각해  
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教育哲學을 하는 사람으로, 政治教育 또는 政治社會化와  
관련하여 분명히 밝혀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어떤 理念이나 制  
度, 北傀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硬化된 體制입니다만 그 모든 體制  
는 人間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體  
制가 좋다 할때 이는 그 體制안에서 모든 人間들이 自我를 구김새  
없이 最善으로 실현할 수 있을때 그것이 理想的이라 하는 것입니  
다. 體制가 人間에 毒仕하는 것이지 人間을 그런 鐵의 體制에  
맞추어서 鑄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큰 罪惡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人間이란 存在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存在입니다. 오늘날 人間에 관한 科学들, 精神病理學을 비롯하여 心理学, 生物学등이 발달하여 人間을 아무리 哲學的 科学的으로 究明하여라도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人間教育을 北韓처럼 어떤 틀에 맞추어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誤謬입니다. 또한 흔히 自由世界에서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人間이 가지고 있는 素質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기르기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人間은 만드는 것도 기르는 것도 아니고 人格과 人格이 만나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는 政治教育이나 政治社會化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人間은 開放的인 存在이며, 앞으로 無限한 可能性과 變化의 可能性 그리고 미리 計劃하여 틀에 잡아넣을수 없는 生動的인 面을 늘 간직하고 있고, 教育은 늘 그것을 존중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就学前 兒童教育을 강조한다 하여도 그렇습니다.

北韓問題를 너무 先入觀을 가지고 보지 말고 産業社會에 突入한 모든 先進社會에서의 世界的 趨勢가 그러하니만큼 時代的 趨勢를 감안하면서 보아야 할 것이다. 美國도 蘇聯을 先入觀으로 보고 文盲이 몇 퍼센트니 하다가 '스프르니크 쇼크'로 大改革을 했읍니다. 존·듀이 (John Dewey) 같은 사람은 물론 그렇게 보지 않고 革命後 蘇聯을 방문하여 教育制度를 視察하고 蘇聯의 教育制度가 놀랍고 따라서 장차 蘇聯은 超強大 先進國家가 될 것이라는 報告書를 쓰기도 했읍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한 어느 美國人들도

蘇聯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기까지는 蘇聯의 교육제도를 비웃음의 눈초리로만 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새마을사업에서도 요즘 成功事例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兒童教育問題를 더욱 심각히 생각하여 創造的이고 生動的이며 또한 産業社會에 適應할 수 있는 人間을 教育하는 事業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長期的으로 볼 때 이것이 北의 共產體制와의 對決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 兒童開發學的 見地에서 본 託兒所制度 』

尹 賢 燮

北韓의 託兒所制度를 分析하기 前에 託兒所制度 일반을 또한 北韓의 託兒所制度를 어떻게 分析할 것인가하는 理論的 構造를 먼저 잠간 말씀드린 후 덴마크, 이스라엘, 공산권의 체코의 事例를 검토한 후, 유대윤氏의 現況說明에 立脚하여 北韓의 託兒所制度를 論하겠읍니다.

兒童開發을 論할 때에 큰 前提가 몇 있는데, 첫째 兒童을 開發할 때 成長段階를 無視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큰 前提는 兒童開發의 目的과 관련된 것입니다. 兒童開發에는 두가지 相反된 理論이 있습니다.

하나는 兒童의 全人間的인 발달을 저해하는 要素를 除去해 주기 위한 開發 즉 덴마크, 이스라엘 기타 韓國, 美國등 自由國家의 託兒所制度이고 다른 하나는 發達하는 兒童自身을 위한 것이 아닌 어떤 國家나 集團의 目的을 달성시키기 위해 特定型의 人間으로 만들기 위한 開發, 즉 北韓, 체코(체코는 北韓처럼 극단적은 아닙니다)의 制度입니다.

그러면 왜 早期開發을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發達心理學上的의 論拠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家庭이든 託兒所든 어떤 社會集團이 人間을 早期社會化할 수 있다는 假定입니다. 그리고 家庭以外의 社會的

媒介체가 필요한 것은 傳統的 家族構造와 機能의 變更, 즉 大家族 制度에서 核家族制度에로의 變化에 따라 家族의 人員數가 줄어들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社會化는 그 社會集團의 文化와 傳統을 전달해 주는 것인데, 核家族制度에서는 舊世代 즉 祖母나 아버지 같은 그 傳達者가 없어지기 때문에 傳統을 固守하기 위해 他媒体에 의한 早期教育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人員數가 줄어들면(戰後 獨逸의 경우는 平均子女數가 1名이었다고 합니다만) 家族内の 社會體制는 單純해지는데, 그러나 社會集團內의 社會生活은 單純하지 않기 때문에 社會適應이 힘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家族内の 社會生活이 單純해지는 것을 補償할 수 있는 團體로써 託兒所, 幼稚園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早期教育을 해야 하는 科學的 根拠로서는, "決定的 時期"란 概念이 있습니다. 어떤 知識이나 概念은 어떤 特定단계가 지나면 學習될 수 없다는 것, 예를 들면 言語는 3~5才에 가장 잘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初期의 政治社會化가 중요한 것인데, 이 "初期의 重要性"이란 개념은 민주국가에서만이 아닌 共產國家에서도 兒童教育의 論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아기의 아동교육은 精神面에서 求心點이 弱할때 원시국가에서의 儀式(ritual)을 통한 교육처럼 어떤 集團의 目的을 爲하여 理性에 호소하기 以前에 感情에 호소해서 가치체계를 하나로 묶는 그런 단계의 교육인데 아까 유대운선생께서 말씀하신 北韓 託兒所에서 김일성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도 이와 같은 感情에 호소한 政

治社會化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당국은 이러한 “決定的 時期”의 개념을 잘 利用하고 있는듯합니다. 물론 北韓이 잘 利用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惡用하는 것이죠.

“決定的 時期”論 이외에 “發達段階的”理論이 있는데, 이는 人間의 思考(政治的이든 社會的이든)의 發達에는 몇개의 段階가 있고, 그 段階段階에는 構造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第1段階, 2段階, 3段階가 있다면 初期의 社會化와 第2段階의 社會化는 構造가 같은데 단지 그 構造가 다른 象徴으로 표현되었다 이거예요. 즉 初期에는 人間의 本能이나 感情에 대한 表示가 第2段階에서는 言語 또는 概念으로 表示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社會化가 第2段階로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2段階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第1段階가 가장 重要하며, 때문에 初期의 教育이 重要的 것입니다.

北韓의 경우, 初期의 教育에서 第2의 段階로 넘어갈때에 先敗라기보다는 故意로 필요한 教育을 하지 않는 점이 있는듯 합니다. 初期에 感情的으로 表現된 社會化가 概念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概念을 評價할 수 있는 論理的 構造가 따라야 하고 論理的 構造가 따르면 自己가 이 感情的으로 習得된 政治의 構造를 評價할 수 있는 能力이 생기는데, 이 評價能力이 생기면 共產主義나 注入式의 金日成崇拜에 대한 評價能力이 발생하게 되어 그들의 集團이나 體制를 解体시킬 수 있는 危險性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필요한 教育을 시키지 않는 것인지 또는 그 評價

能力을 키울 能力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教育的인 理論根拠以外에 道德的, 倫理的인 理論根拠를 첨부하고자 합니다. 과연 兒童自身이 아닌 他人, 父母나 社会 또는 國家가 兒童을 他意로 開發하는 것이 倫理的인가? 왜냐하면 兒童은 자기 스스로의 人生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어리지만 潛在的 能力이 있는 市民을, (父母까지는 양보를 한다하더라도) 國家나 社会가 兒童을 開發할 道德的 資格이 있는가 하는 問題인데 나 자신 아직 確실한 決定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兒童開發學의 類型과 세가지의 理論的 根拠로서 가장 成功的이라 할 수 있는 벤막과 이스라엘의 自由主義的 託兒所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벤막의 경우는 託兒所가 義務的은 아니나 굉장히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個人의 自由에 重點을 두고 어린아이의 環境을 참조하도록 장려되지 결코 環境을 兒童에 強要하지 않습니다. 家族은 여러가지로 託兒所側에 協同하도록 장려되고 있고, 예컨대 北韓의 경우처럼 젓먹이는 時間이 30分으로 制限되어 있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록 託兒所가 兒童의 社會化를 맡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心理學에서 말하는 人間의 attachment, 本能的인 사랑(이것이 결국은 抽象的이며 보편적인 사랑이 되는데)을 이러한 假說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北韓의 경우처럼 젓먹이는 時間이 制限되어 있는 것은 発達心理學的으로 볼 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以外에 다른 한 成人이 完全한 사랑을 주고 있다면 그 보살피는 사람이 반드시 어머니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은 하바드大學의 제롬 케간 (Jerome Kagan)이란 発達心理學者가 美國政府의 의뢰를 받고 託兒所에서 자란 兒童이 어떤 性格을 갖나 검사한 결과 나온 結論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知的 発達도 별 손해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완전한 보살핌을 하는가가 문제지요.

이스라엘의 키부츠 (Kibbutz)도 비슷한 理論的 根拠위에 세워졌으나 本質과는 달리 (둘 다 二次大戰이후 國家를 開發, 再健하기 위해 생겼읍니다만) 家族機能이 거의 全적으로 키부츠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父母는 완전히 兒童을 集團에게 맡겨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나 기타 家族成員과의 關係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장려됩니다. 이처럼 키부츠에서는 成人과는 關係없이 同儕와 集團 關係內에서 사랑의 關係로 살아가고 있는데, 키부츠를 研究한 心理學者들은 모든 発達面에서 傳統的 家庭에서 자란 兒童들보다 키부츠의 兒童들이 健全하고 優秀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傳統的인 家庭에서는 父母들이 理想的인 兒童教育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키부츠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키부츠를 이 世界아무데서나 實現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誤算입니다. 왜냐하면 키부츠를



수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착실한 엘리트들 즉, 개인의 행복보다는 국가의 건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들과 그 자孫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각오가 없는 사람들에게 키부츠식의 교육을 하면 失敗한다는 겁니다. 最近 키부츠를 中東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실험하려 했으나 失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코의 경우, 共產黨의 類型으로 成功的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데, 이는 自由國家와는 달리 國家가 미리 決定된 指針에 따라 兒童의 發達을 調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滿 1.2才 兒童의 身體的發育이 自由集團의 兒童들보다 評이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만 1년에 걸음마를 할 수 있는 兒童이 체코의 託兒所에서는 8個月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發達이 知的으로, 政治的으로 어떠한 結果를 줄 것인가는 알려진바 없습니다. 北韓과 類似한 것은 父母와 教師와의 關係가 斷絶되어 있는 점인데, 父母는 젓먹이는 것같은 기본적인 보살핌 이외에는 教師에게 干與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第2의 類型, 즉 國家의 目的을 위해 特定型의 人間을 開發해내는 類型이지요.

이제까지의 類型과 事例에 비추어 볼 때, 北韓은 명백히 第2

의 類型이며, 科學的인 理論的根拠도 가지고 있는데, 具體的인 敎育  
內容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兵丁놀이불 시키는것 같은 것은  
이것이 반드시 이들을 가장 훌륭한 軍人으로 만들것 느냐는 의문입  
니다. 왜냐하면 第2段階로 넘어가는 敎育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  
에 오히려 靑少年問題만 야기시키고 暴惡한 性格만을 키우지 않았  
나 보여줍니다.

라. “精神分析学的 側面에서 본 北韓의 託兒所制度”

— 白 尙 昌 —

時間關係上, 北傀가 이번 채택한 “兒童保育教養法”이 북한 兒童 및 北韓社會에 招來할 結果를 몇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빗덩이 乳兒로부터 兒童을 集團受容하는 북한의 탁아소제도는 脫家庭, 脫父母政策을 計劃적으로 推進하는 것으로, 이로 因하여 北韓地域에서는 우리 民族古有의 美風良俗이 抹殺되어 버릴 것입니다 (지금도 抹殺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世界의 모든 人類가 다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民族에 있어서 家庭은 5千年동안 學齡前 兒童教育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民族이고 學齡前 兒童教育의 가장 훌륭한 담당자도 家庭인 것입니다.

그런데 北傀는 지금 託兒所 幼稚園制度를 통하여 우리의 傳統的인 家族制度를 破壞하고 脫家庭, 脫父母를 과감히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東洋의 家族制度가 얼마나 좋은가를 科學적으로 分析하여 說明하는것을 생략하더라도 美國의 유명한 神學者인 폴·틸리히 (Paul Tillich)가 作故하기 얼마전 西歐文明의 위기를 家庭의 破壞와 관련하여 論하면서 現代 歐美社會에 있어서의 家族制度를 現代的意味에서 再評價하며 東洋의 가족제도를 얼마나 부러워 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北傀는

지금 이런 家族制度에 바탕을 둔 우리의 美風良俗을 계획적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託兒所出身의 북한 아동들은 愛情缺乏으로, 즉 父母들의 無條件的 사랑이 아닌 條件反射的 訓練을 통해 養育되기 때문에 실리반 (Sullivan)이 말하는 Basic trust, 즉 “基本的 信賴”를 喪失하여 成長後 精神分裂症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專門적으로 말하자면, 兩面感情 (ambivalence)을 가진 存在가 될 것이며 그 依存性을 탈피하기 爲한 方便으로 히틀러의 청년근위대 (Hitler Jugend)와 같은 무지무지한 猛獸的 存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나 明白한 일입니다만, 父母子息關係는 肉親的 愛情으로 無條件的인 愛情입니다. 아이가 똑똑하고 튼튼하고 씨먹을 만해서 귀여운 것이 아니라 체·자식이기 때문에 웃어도 귀엽고 못나고 울어도 사랑스러운 것이 父母의 愛情이며 이것은 수만년 人類가 共通으로 지내온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金日成 수령님과 사랑”의 關係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아동들은 그러한 父母의 無條件的 사랑에서 隔離된 채 條件反射的으로 訓練되며 成長하기 때문에 以上에서 말씀드린 精神病的 存在가 될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탁아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成長過程에서 본 떠야 할 鎔物的 存在의 不在로 成長後 正体意識 (identity)이 薄弱한 人間, 다시말해서 매우 흔들리는 存在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性格形成은 成長過程에서 父母를 通하여 父母를 본뜨며

形成되는 법인데, 북한 탁아소 아동들의 경우 生父母와는 隔離受容되어있으며 본 때야할 "어버이 수령 김일성"은 成長환경에 存在하지 않는 멀고 추상적인 存在로만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人格形成을 할 경우 그 구조되는 틀, 즉 identification은 매우 회미한 것이 됩니다.

본 때야할 對象은 오직 保母뿐인데 한사람의 保母가 수십명의 아동을 養育하고 있는 実情입니다. 더구나 그 保母라는 사람은 "革命"이니 "戰斗" 등의 구호나 외치고 하나의 勞動으로서 어린이를 양육하자니 거기에 무슨 愛情같은 것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어린 關係속에서 자라는 북한의 어린이들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오레스테스 콤플렉스(Orestes Complex)를 갖게되는 기형적인간이 될 것입니다.

넷째는 父母의 承認(approval)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人格形成에서 가장 重要한것은 父母의 承認인데, 人間은 어머니에서 멀어지는 隔離不安(Separation anxiety)와 관련, 어머니의 approval-disapproval을 통해 또한 이 관계의 적응을 통해 원천적인 不安을 극복하며 性格을 形成해 갑니다.

그런데 북한 탁아소의 경우 保母가 어머니의 이 承認-不認 關係를 代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代行한다 하더라도 保母한명이 수십명의 兒童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탁아소 아동들은 保母의 승인을 받기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리게되며 결국 부모의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 이를 補償(Compensate)하기위해 지나치게 競

爭的인 存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형제가 年年生으로 여럿인 경우 그 형제들은 아주 경쟁적이 되는 수가 있는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애정을 차지하지 못한 좌절감은 적개심과 공격적 性向으로 나타나며 (아까 북한 아동들이 포악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읍니다만) 善意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좌절감과 시샘에서 우러난 치열한 경쟁의식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成長後 북한 아동들의 過剩競爭意識은 勳章을 타야된다는 執念으로 포악하고 殺人的인 性向으로 나타날 것이며 북한社會에는 치열한 경쟁과 相互不信만이 횡횡할 것입니다.

다섯째, 生母와 격리된 週・月탁아소에서는 결국 우유병으로 젖을 먹이는 튜브-취딩 (tube-feeding)이 不可避한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 社會에 위궤양, 당뇨병 氣管支哮喘과 같은 精神作用症의 (psycho-somatic) 병들이 만연할 것입니다.

1950年代에 美國에서 지금말한 여러가지 병들이 만연하여 조사해 본즉 tube-feeding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젖을 먹여 키우는 breast-feeding이 다시 유행된 後 위궤양 당뇨병 등의 병이 줄어든것이 통계로 나타나있고 젖먹이는 방법과의 相關關係도 높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한社會에도 -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 2, 30年 後엔 그런 병들이 많아질 겁니다.

여섯째, 어린아이들 낳고 기르는에는 父母와 兒童間에 相互滿足

( mutual contentment ) 이 前提되어야 하는데, 북한 탁아소의 경우 이러한 상호만족이 缺如되어 結果적으로 아동들은 아동답게 자라지 못하고 形成期에 이러한 "다음"의 喪失은 나아가 이들은 自己存在이며 同時に 남의 눈치만을 보는 存在, 즉 인간 "다음"을 상실한 反應的存在 ( reflected-self )로 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또한 20여년의 임상경험을 통해서 "자식이 없는 父母는 不幸"이라는 것은 절실히 보고 느끼고 확인했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른다는것은 代를 잇는다는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것 이외에도,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인간이 두번 살고 싶은 욕망을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자기 生을 再確認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식을 키우는데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기쁨이 있고 이러한 相互滿足 ( mutual contentment ) 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탁아소에서 부모와 유아들 사이에 이러한 상호만족이 있을 수 없고 "혁명가이며 노동자"인 保育員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동답게 자라지 못할 겁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 다워야하고 선생은 선생 다워야 하는데 세상도 안된 어린이가 人生이 어떻게 美帝가 어떻게 革命이 어떻게 하면 사람 환장할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生父母들이 자기자식들을 직접 돌보지 못하는 恨과 그에 따른 罪의식은 간간이 만나는 순간에서나마 무섭게 아이들에

게 전달되어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成長後 자기존재에 의문을 갖는 存在가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자기들이 바라는대로 기르고 싶은 권리와 그에 따른 바람, 기대는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의 기쁨을 이루는 要素들입니다. 부모들의 이러한 기쁨이 北에서는 박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짓을 주고 싶어도 짓이 붙어 짓을 제때에 마음대로 주지 못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어머니의 좌절감, 죄의식등은 어린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좌절감과 죄의식을 전달받은 아동은 커서도 자기 存在에 회의를 느끼는 人間이 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이번 조치는 自滅을 招來할 것이므로 對決하고 있는 입장에서만 볼 때에는 매우 바람직스러워서 가만히 좀 놔두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것을 규탄하고 고쳐주어야 하며 일면 통일을 위하는 의미에서 참으로 걱정해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가지 첨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탁아소 문제는 닥쳐올 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30年 또는 40年後에 영향을 미칠 북한사회의 문제인데 現在 북한주민의 의식구조를 究明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줄 압니다.

김일성 통치하에서 30년동안 자란 주민들의 有形無形, 行動的, 言語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behavior가 참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이라고 할때, 본 탁아소문제도 全体 북한주민 의식구조分析의 일환으로 展開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가지 觀点에서 북한 탁아소제도 및 이와 연관된 문제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탁아소는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적인 탁아소와 그 概念上的 差異점이 무엇이며 이러한 탁아소는 母性愛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實情에는 託兒所가 어느정도 필요한가 하는것이요,

마지막으로 탁아소문제를 女性の 社会的 進出이란 觀点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託兒所의 概念과 關係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託兒所라하면 보통 出勤때 아이를 맡겼다가 찾아오는 1日탁아소나 隔日制 또는 時間制를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은 1日 託兒所制를 점차 廢止하고 週, 月 託兒所制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의 탁아소는 그 託兒期間에 있어 根本的인 差異가 있는 셈이지요. 또한 말는 아이들의 年齡에 있어서도 우리는 보통 3才~6才의 학교가기 前까지인데 反하여 북한은 낳아서부터 학교가기 前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참석요청을 받고 지난 4月末부터 5月까지의 노동신문을 뒤져 보다가 5月初 노동신문에난 託兒所의 사진을 보았는데 놀란것은 탁아소에서 아이를 기르는 장면과 탁아소의 규모입

니다. "송림 애기궁전"인가 하는 현판이 붙어있는 철도 기관사들의 유아 탁아소였는데,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처럼 유아들을 바구니에 담아 놓아 두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커서 방직공장의 실뭉치가 죽 늘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週·月 託兒所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父母가 없이 자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父母없는 兒童의 性格形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다 잘아시는 바이므로 再論할 필요가 없겠지요. 다만 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은 日前에 新聞에서 읽은 마가렛 드 미드(Margaret Mead) 女史의 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正當적으로 잘 자라기 爲해서는 家庭生活을 해야 하는데, 特히 그 가정에는 두사람 以上の 成人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동은 그 두 成人이 서로 사랑하고 理解하고 協調하고 또 容恕하는 그런 成熟한 關係를 같이 살며 느끼며 배우고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읽고 깊이 느낀바 있었습니다. 북한의 大規模 週·月 託兒所에서 자라는 兒童들이 이러한 成熟한 關係를 느끼며 자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母性愛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男性도 마찬가지로 지겠지만 특히 우리 女性에게 있어서 生의 보람이라면 역시 家庭이 中心이되고 家庭의 愛情을 基盤으로 하고 있습니다.

母性愛를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기를 원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는 一生의 work가 있고 가정은 그 一部라고 생각되는 수도 있으나 우리 女子들에게는 남편, 아이를 가진 가정이 生의 全部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이번 탁아소제도는 母性 愛를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고 그 附隨的인 效果로 북한의 人口減少現狀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자신 職場을 가진 女性이지만, 만일 家庭과 職場中 拮据을 強要당한다면 모든 문제를 새로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實情에 託兒所가 얼마나 必要한가 하는 문제인데, 南北韓 어느 世界를 막론하고 아이가 3名이상이 되면 託兒所의 必要性을 느낄 겁니다. 특히 南韓의 低所得勤勞女性이 經濟活動을 위해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는 託兒所가 반드시 필요하며, 現在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託兒所制度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社會속에서는 週·月 託兒所는 想像할 수 없겠지요. 北韓에서 이것이 잘 運營된다면 모르지만 이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겠지요. 잘 운영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기꺼이 맡긴다면 피롭고 피로하고 구차한가. 그 社會相을 이루어 질작 할 수 있습니다.

즉 잘 사는 社會일수록 잠깐잠깐 맡기게 하는 制度가 있는 것이지, 아이 기르기가 심고 귀찮고 日常生活은 피로하니 아이를 갖다 맡긴다 하면 삭막한 生活樣相일 것

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韓國에서는 1日 託兒所가 父母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필요한 것은 尹先生께서 말씀하신 先進國의 事例를 미루어 알 수 있겠어요. 託兒所는 協同精神, 讓步精神, 獨立精神, 또는 共同體意識을 開發하는데 필요합니다. 아까 어느 선생님이 하루종일 아이를 끼고 있고 싶은 本能에 託兒所가 어떻게 作用할 것인가 하는것을 제기 하셨는데, 매일 아이를 끼고 있다고 해서 아이가 더 잘 자라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사회에는 1日 또는 時間制 託兒所를 많이 設置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中流生活을 하는 家庭에는 얼마나 託兒所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中流라도 어머니가 아이를 직접 보살핀다면 모르되 食母에게 맡기고 하루종일 나가서 일하고 돌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時間制정도의 託兒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직접 보살피 주고 兒童發達에 좋은 知識과 분위기가 마련된다면 그 대로가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女性의 社會進出과 關係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제 이야기는 社會發展을 위한 女性의 社會進出에 대해 消極的인 것으로 되었는데 사실은 그런것이 아니예요. 우리사회에서 女性의 社會進出이 필요하다는 것은 틀론입니다. 人口政策의 成功으로 인한 2名의 자녀 核家族制度에로의 變化, 高等教育을 받은 女性의 增加로 雇傭面에서도 풀·타임은 물론 時間制도 女性에게 공하여 國家的인 次元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의 主題와는 直接的 關聯이 없기 때  
문에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다시 아까 말

다시 아까 말씀하신 問題로, 北韓社會에서 北韓의 어린이 약 350  
萬名이 6萬個所의 託兒所 幼稚園에 收容되고 있는데 이는 人口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현재 託兒所와 유치원에  
맡겨진 兒童이 약 15萬名으로 3~6才사이 어린이 약 420萬名  
中 3.4%만이 早期教育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420萬名中에서  
약 半數가 託兒所가 필요한 그런 家庭에 산다. 즉 生活이 어려  
운 家庭에 산다고 할 때, 약 210萬名의 兒童이 託兒所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됩니다.

실제의 숫자는 그 以上일 것이, 低所得層일수록 子女의 數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보다는 약 20배는 더 늘어  
야만 託兒所가 制度로 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低所得勤勞女性은 대개 都市의 時間制家庭婦, 行商,  
市場의 零細商人, 農村의 農繁期의 女性입니다. 대부분 이들은 아  
이가 아주 어릴때는 업고 다니고 좀 크면 집에 혼자 放置해 두  
어서 文化的 刺戟이 전혀없는 집안 구석 아니면 이웃아이들과 골목  
에서 놀고있는데, 이는 어른들이 전혀 돌봐주지 못하는 環境입니다.  
1洞1個의 놀이터를 政府가 推進中인데, 그러나 不進한 상태로 알

고 있습니다.

梨大의 隣近地域 靑少年을 대상으로 한 調査에 의하면 약 54.8%가 自己父母에게 自己自身에 관한 이야기들 전혀 안하거나 거의 안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政府의 對策이 필요합니다. 제가 提案할 수 있는 것은 地域別 託兒所 같은 것을 새마을事業의 一環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새마을事業이 새마을사업인즉, 어린아이를 잘 기르는 일을 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가장 偉大한 國家의 공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女性의 社會進出과 관련하여, 北韓의 이번 "兒童保育敎養法" 6條에도 女性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負擔으로부터 解放"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負擔"이라고 했는데요, 무거운 부담에서 解放시켜 가벼운 부담이나 즐거운 부담을 준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좀더 무거운, 좀더 지겨운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얼핏 보기엔 社會活動을 女性이 잘 할 수 있는, 즉 女權伸張이 잘 된것같이 보이지만 (또 실제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女權運動이 人間化運動이고 보면 女權伸張과는 조금도 關係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女性이 主婦가 되어 家庭生活을 하든 職場生活을 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自意에 의해서 選擇할 수 있어야지 강제로 힘든 노동을 해야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人間化 女性의 女權運動에 逆(逆)

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傳統的歷史를 볼 때 북한의 女性들도 30年前까지만해도 우리 女性과 똑같은 生活을 해 왔는데, 30年後에 와서 갑자기 萬場一致로 自願해서 作業場으로 나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家庭을 가지고 子女를 기르는 즐거운 使命을 포기시키고, 産業化에 따른 女性勞力の 動員, 착취에 로 내어본다면 이는 北韓社會 “革命化”의 一環으로 밖에 볼 수 없겠지요.

우스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北韓에서 女性解放運動이라면 그 이미지는 우리와 反對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기서라면 女性解放運動家は 家庭에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型이라면, 그쪽에서는 오히려 作業場에서 家庭으로 뛰쳐들어가는 그런 像이 아닐까 합니다.

結論적으로, 託兒所문제는 女性人力開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北에서는 託兒所문제도 그렇고 女性人力문제도 그렇고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듯합니다. 南韓에서는 그 反對의 極端은 아니나, 우리가 어느정도 女性人力開發과 託兒所制를 좀 더 擴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 社会学的侧面에서 본 北韓의 託兒所制度 ”

韓 完 相

주어진 題目과는 조금 달리 社会学徒가 본 北韓式 週·月託兒所의 問題点 몇가지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첫째, 北韓의 週·月託兒所運營에 있어서 前提된 人間에 대한 基本假定에 問題가 있습니다. 人間을 보는 여러가지 學問的 立場이 있는데, 대개 세가지 立場이 各己 人間을 非主體的이고 機械的이고 條件화된 反應體, 決定論的인 人間, 그리고 “ 빈병 ” ( tabula rasa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 으로 보고들 있습니다. 먼저 古典的 精神分析學的 立場에 의하면, 初期 經驗이 人間의 性格을 결정적으로 決定해 버린다고 보는데 北韓은 이러한 人間觀을 굉장히 基本으로 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古典的 學習理論, 所謂 reinforcement theory와 最近에 말쟁이 되고 있는 Skinner理論에 의하면 人間은 刺戟에 대해 機械的으로 反應만 하는 一種의 파브로프의 개나 스키너의 비둘기와 쥐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한 實在論的인 社会学理論에 있어서는, 人間이란 社會의 構造에 의해 얽매어 사는 囚人이다. 즉 構造에 갇혀있는 囚人으로서 단순한 役割演技者 ( role player ) 에 불과하다고 把握합니다. 이상하게도 託兒所를 運營하려는 北韓의 正策樹立者들의 머리 속에는, 그들이 이 세가지 理論을 실제 터득하였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제가 볼때 이들 그릇된 人間觀이 이들 理論에 박혀있는듯 하며 이번 託兒所 制度는



이들 理論에 근원을 둔 것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로, 北韓의 이번 託兒所制度는 家族이라는 一次的集團의 關係를 弱화 내지는 破壞시키는데에 問題가 있습니다. 一次的 集團의 關係가 弱化되면 어떤 人間이 되느냐 하는 것은 白先生께서 精神分析學的으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社會學的 資料도 많습니다. 確實히 一次集團의 關係, 쉽게 말하면 人間과 人間의 關係가 人格과 人格의 關係 즉, 手段과 手段의 關係가 아니고 全人格的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尊重하고 사랑하는 이 關係가 北韓의 週·月託兒所에서 깨어질 때 어떤 人間이 되겠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 Sullivan의 basic trust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K.Honey의 所謂 基本的인 不安이란 概念으로도 說明될 수 있습니다. 호나이(Honey)에 의하면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는 不安, 즉 "基本的인 不安(basic anxiety)"을 克服하기 위해 여러가지 戰略을 만드는데 그 克服하는 戰略중의 하나가 固着되면 이것이 性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攻擊的 方法으로 나타나면 攻擊的 人間이 될 터인데, 北韓의 그것은 공격적인 性格形成에 도움이 되는 刺戟을 繼續주는듯 합니다.

예컨대 아까 유대윤氏가 말씀하신대로 "美帝國主義者"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아동들로 하여금 그 얼굴을 찌르게 한다는 것은 북한 아동의 성장 여건이 증오심을 개발하고 攻擊的 성향을 조장하는 단적인 例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人間들을 길러 놓으면 그 社會는 攻擊의 對상을 不斷히 창조해야할 것인데

(아마 不斷히 창조할 겁니다. “美帝와 南朝鮮傀儡”가 없으면 다른 무엇으로 代潛를 해서라도), 이는 장차 反民主的인 大衆運動이 誘發되는 構造的, 心理的 素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로, 어린이가 클 때 제일 重要的 것은 누구와 同一視하느냐 하는 것인데, 社会学에서는 “重要的 他者( Significant Others )”라고 합니다. 이 重要的 他者は 우리나라의 美 良俗에서 뿐만 아니라 人類共通으로 父母입니다. 따라서 北韓의 託兒所 制度는 韓國의 美風良俗뿐만 아니라 人類의 普遍的인 美風良俗을 깨뜨리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北韓의 託兒所에서는 父母라고 하는 重要的 他者の 자리를 박탈하고 그 자리에 金日成이를 집어 넣고 있는데 이는 北韓의 託兒所가 키부츠나 덴마크, 심지어 체코의 託兒所와도 다른 점입니다.

重要的 他者が 生父母가 아닌 金日成이라고 할 때 이는 어린이가 자기의 正體( Identity)를 개발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生父母와의 關係와 金日成에 대한 관계 둘 사이의 葛藤의 問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린이 자신만이 아니라 父母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부모들은 물론 말기라니까 條件反射的으로 아이를 託兒所에 집어넣기는 하겠지만 30代 以上の 父母에게는 무언가 葛藤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基督教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저도 基督教信者입니다만) 우리 아버지와 葛藤할 必要가 없습니다. 내 生父母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메아아 간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보이는 父母를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둘다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데 北韓에서는 金日成이나 生父母이나의 選擇을 強要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金日成의 立場에 서서 生父母를 党性이 부족하다, 革命的 精神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아버지를 批判해야 하는 立場이 發生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金日成이가 重要的 他者가 되기 때문에 家族의 紐帶關係는 여기서부터 弱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家庭이 쉽게 社會主義革命의 實踐場化 되는데 아마 그러기 위해서 託兒所制를 하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朕은 곧 國家다" 식으로 "金日成이 國家다"라고 되어 있고, 金日成의 思想을 볼 때 國家를 굉장히 重視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國家는 有機體고 家庭은 細胞다" 즉 細胞는 죽더라도 有機體는 산다, 다시 말하면 家庭은 죽어도 國家는 산다는 것인데, 이 文句는 분명히 憲法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有機體는 細胞를 鞏固히 해야 한다 했는데, 사실 鞏固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뒤집어 놓으면 細胞로서의 家庭은 죽어도 有機體를 살려야 한다는 論法이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저는 北韓의 社會體制를 맑스레닌主義의 正統後繼者로 보지 않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似而非 新興宗教集團, 政治的 新興宗教로 봅니다. 결국은 週·月託兒所가 이러한 似而非新興宗教 用胎의 基盤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指摘하고 싶습니다. 사실 北韓의 金日成體制는 似而非 新興宗教의 特性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似而非宗教의 特性 가운데 첫째, 敎主가 확실히 存在해야 합니다. 여기서 金日成이란 敎主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君臨하는데, 그는 基督教의 메시아, 永遠한 勝者, 아까 유대운氏가 말씀하셨듯이 "絶對로 지지 않는, 항상 이기는 사람"으로 浮刻됩니다.

예컨대 蹴球도 지는 것만 빼고 이기는 것만 報道하면서 이것도 金日成思想이 투철해서 勝利했다고 하면, 이는 兒童들에게 대하여 永遠한 勝者, 메시아로서의 金日成과 聖父로서의 金日成을 아주 잘 浮刻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新興宗教의 두번째 特徵은 宗教的 儀式(ritual)이 있어야 합니다. 자, 북한에도 이 食事祈禱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몽아놓고 밥을 줄 때 "이것은 金日成 수령님이 주는 것이니 感謝하다" 하는 것과 "일용한 양식을 주시어, 하나님 感謝합니다"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또 金日成의 노래도 있습니다. 仙敎도 요즘 노래가 있고, 基督教에는 찬송가가 있는데, 金日成 찬양의 노래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似而非 新興宗教의 세번째 特徵은 憎惡의 對象을 心理學的으로 投射하고 制度化하는 것입니다. 似而非宗教일수록 自己의 正統性을 주장하기 위해서, 自己의 異端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北韓에서 住民의 成分을 核心, 基本, 複雜으로 나눈 것부터 異端의 区分에 해당하는 것이고, 南韓의 傀儡니 美帝니 하는 것도 異端을 규정해 놓고 이 異端에 대한 憎惡心을 계속 開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正統성과 純粹함에 대한 獨信的 믿음을 지

속 開發하고 있는데, 託兒所는 이를 위하여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번째 特徵은 유토피아의 共同體를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 없이는 新興宗教를 믿을 必要가 없는 것이지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Skinner의 소설에 나오는 Walden tusik이나 Huxley의 소설에 나오는 千年王國같은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는데 託兒所制度를 통해 북한당국은 北韓社會가 가장 文化的이며 前進한 模範이다하는 것을 보여주는듯 합니다. 그리고 유토피아 共同體의 몇가지 特徵으로 우리 意識, 使命意識, 相互信賴意識, 希望意識 같은 것이 있는데 北韓에도 이런 것이 모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省略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意識들을 託兒所에서 다 넓혀 주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強調하고 싶은 것은 週·月託兒所에서 길러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硬直하고 뚜렷한 正體意識 (Sense of identity) 을 갖게 되는데, 너무 뚜렷하고 硬直한 正體意識이 생기면 問題가 있다. 즉 變化하는 環境에의 適應能力이 없다는 것입니다. 自體社會內部에서나 世界環境內에서 變化가 많은데, 너무 뚜렷한 正體意識, 즉 金日成 아들이라는 認識으로 因해서 猪突的인 行動, 부르짖는 行動, 冒險主義的 行動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冒險主義에 依存하는 것은 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즉 부드럽게 適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Erikson 같은 사람이 말하는 心理·社會的 支拄延期 (Psycho-social

moratorium)가 없어서 成長後 主體的으로 選擇하는 하는데에 負擔을 느끼게 되어 전혀 實驗할 수 없는, 命令에만 服從하는 로봇과 같은 人間이 되고 말 것입니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몇가지 決論的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1日 託兒所의 경우는 金日成이란 要素가 없는 限 좋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나라의, 예컨대 키부츠 등과 金日成의 1日 託兒所와를 比較해서 깊이 研究할 必要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週·月 託兒所에서의 反家庭的 教育은 韓國民族의 美風良俗만 이 아닌 人類의 普遍的인 美風良俗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狀況을 보면, 家庭에서 아이들의 權限이 무지무지하게 커져서 "어린이가 王"이라는 말처럼 어린이도 自律的 選擇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問題는, 家庭에서 이렇게 自由롭던 아이들이 幼稚園, 學校로 나아가는 過程에서 점점 조여지게 되는데, 이런 自律的 人間이 계속하여 自律的으로 자랄 環境을 마련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北韓의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狀況과 比較하여 우리의 長점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李선생님께서 教育競爭을 말씀하셨는데, 競爭은 하는 것이 좋고 이겨야 하는데, 그 方式은 저들의 것의 模倣이 아니라 우리의 長점을 살리는 方式으로 이겨야겠다는 이야기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安當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만약 週·月 託兒所가 앞으로 確實히 制度化되어 實施된다면 北韓사람들의 意識構造는 더욱 더 硬直化, 異質化되어 文化的 統合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南

北對話도, 平和的 統一의 可能性도 더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統一正策이 先平和·後統一인데 이를 北韓은 南韓이 永久分斷策을 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週·月託兒所를 통해 그런 反應體的 非人間, 金日成의 機械的人間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계속된다면 그들이야말로 永久分斷을 劃策하는 하나의 文化政策을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다. 週·月託兒所 問題를 시시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면밀한 綜合的인 研究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統一院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매우 훌륭한 問題提起라고 말하고 싶고 앞으로 東歐나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研究員을 파견한다든지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長期的인 眼目으로 統一政策을 研究해 주기 바랍니다.